2018년 7월 부모교육자료

더 기다려 주는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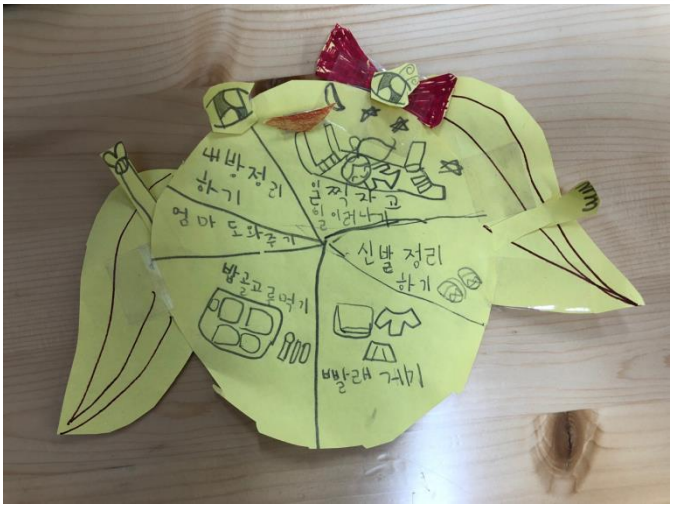
다들 너무 기다려 주지 못해요.
기다리며 내면을 키울 시간을 주지 못하고,
부모의 불안을 아이들에게 던져 넣지요.
하지만 아이가 어른이 되길 기다려 주지 않는 한,
아이는 몸은 커도 내면은 어린아이에 머뭅니다.
아이가 의존적이라고 한숨 쉬는 부모들을 자세히 보면
정작 부모가 아이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모가 바라는 건 걱정 없고 문제도 없는 상태죠.
그런데 아이를 독립시킨다는 것은
걱정의 많은 부분을 아이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아이에 대한 존중이고
그럴 때 아이가 독립적으로 자랍니다.

* 서천석(2013).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

2018년 7월 부모교육자료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아이에게 맡기고 존중해주면
스스로 배려하는 아이로 자랍니다.

★ 유치원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스스로 만든 생활계획표

2018년 6월 29일(금) 국화반 김00 관찰일지

나의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함을 이야기나누기시간에 활동했다. 놀이가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 때 김00은 선생님을 부르더니 이야기한다.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
김00 손에는 사람 얼굴모양의 종이가 들려있다. 자세히 보니 계획표가 그려져 있다.
"우리 김00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계획표를 만들었어요?"하고 묻자 고개를 끄덕인다.
엄지손가락을 들어 '최고'라고 해주자 김00은 신나게 웃으며 다시 미술영역으로 간다. 잠시 후, "모양을 조금 바꿨어요." 손과 눈이 생긴 계획표를 보여준다. 선생님이 웃자 김00도 따라 웃는다.